

수영로편지

• 2019. 7. 14. 설교
• 설교 | 김 지 찬 협동목사

그대는 복 있는 사람인가?

시편 1편 1-6절 **본문**

1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 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4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무엇이 행복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견해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행복을 바라는 데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양 신학에 의하면 행복의 여신은 매우 짓궂기 때문에 인간 곁을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행복의 여신은 인간이 쫓아가면 도망가고 냉정하게 멀리하면 유혹을 하려 달려들고 단념하면 뒤에서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에는 진보와 보수가 차이가 없다고 저명한 교육 칼럼니스트인 김규항 선생은 말합니다. “보수 부모는 당당한 얼굴로 아이들을 경쟁에 밀어 넣고 진보 부모는 불편한 얼굴로 아이들을 경쟁에 밀어 넣는다. 우파 부모는 아이가 일류대생이 되길 소망하고, 좌파 부모는 아이들이 좌파적인 일류대생이 되길 원한다.” 모든 인간들이 내심 행복을 바라기 때문에 심지어는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겉으로는 기복주의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내심 행복을 바랍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날도 여전히 사실

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을 말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세상은 행복해지는 방법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언론에서 행복을 이야기할 때는 심리학자, 철학자, 의사, 심지어는 불교 스님들을 부르는데 목사들은 초청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독교와 교회는 행복을 이야기하지 않는 곳으로 보는 것입니다. 심지어 서울 대학교 안에 행복연구센터가 있고 행복 교과서를 출판하지만, 성경과 교회는 행복을 이야기하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제자도와 십자가를 가장 많이 강조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오히려 ‘기독교 희락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할 때 이는 행복이 최고선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최고선을 추구하는 계과적으로 최고의 행복을 가져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행복을 추구해야 하며 온 힘을 다해 추구해야 합니다. 행복하고자 하는 갈망은 모든 선한 일을 위한 적절한 동기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향한 갈망을 버리면,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신의 유익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의무만을 추구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속적 쾌락주의 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순수한 것들에 관심을 두라고 가르칩니다. 기독교 희락주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최종적으로 지속적인 행복의 길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성경적입니다.” 십자가와 제자도를 가장 많이 강조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을 ‘기쁨의 신학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단어가 불편할 수 있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역시 복을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신 첫 번째 행동이 인간을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갈릴리에 산에 올라가서 하신 설교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도 마찬 가지입니다. 시편에는 ‘복 있도다’라는 말이 무려 26번 나오는데, 서론격인 1편과 2편 그리고 결론격인 146편에 나옵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2장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

이 있도다” 시편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150편 가운데 26번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사실은 성경에서 복이 중요한 주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다보면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이든 예수님의 팔복 설교든 간에 단한 번도 ‘복은 무엇이다’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복 있는 사람을 묘사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밑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을 묘사하지 행복 자체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묘사하고 왜 복이 무엇인지를 정의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알아볼 내용은 성경이 ‘복 있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데 왜 복 받은 사람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 있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주린 자, 목마른 자, 박해받는 자가 왜 행복한 자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시편도 마찬가지로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범사에 형통하 다고 되어있는데 3편을 들어가면 전혀 달라집니다. 시편 3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경건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시편 7편 2절에 “건저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 같아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의인들이 사나운 사자들에게 물어뜯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편 6편 2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하는 것을 보면 병으로 수척하고 뼈가 떨릴 정도에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의인들이 환란과 고난과 적들에게 박해와 질병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이라니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두 번째 풀어야 할 질문입니다.

우선 우리가 풀어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왜 성경은 행복이 무엇인지를 정의하지 않고, 단지 행복한 자가 누구인지 묘사만 하고 있는가?’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돈, 지위, 명예, 외모, 권력 이런 것을 행복의 조건이라고 보고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면 행복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들은 자기의 노력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집안, 타고난 외모, 좋은 친구, 운 등과 같은 행운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헬라어에서도 행복은 ‘유다이모니아’라는 단어인데 좋은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귀신을 옆에 두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동양인들도 행복을 얻으려면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한자로 ‘福’이란 단어를 보면 제사에 쓰인 고기와 술의 모양을 본떠 만든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해지려 신을 믿고 신에게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문제는 인간이 행복을 목적으로 삼는 한신의 마음에 항상 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행복 자체를 쫓아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래전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깨닫고 명쾌하게 지적했습니다. 그의 책 「세상이 모르는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행복」에서 “행복이란 절대로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찾아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행복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요리조리 빠져

달아나는 행복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의를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행복을 찾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복 자체를 그 자체로 목적으로 두지 말아라. 행복이란 언제나 다른 일의 간접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행복은 언제나 그보다 무한히 더 큰 것, 무한히 더 큰 가치가 만들어내는 부산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행복이란 언제나 다른 일을 하다 보면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고 언제나 행복보다 무한히 더 큰 것을 추구할 때 받게 되는 부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행복을 목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다른 일, 즉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간접적인 결과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행운을 바라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무한히 더 큰 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을 살게 되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부산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 1절~2절도 너무나 똑같습니다. “¹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²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행복 자체를 추구하기보다는 걸 으로 보기에 행복과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일, 즉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간접적인 부산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얻으려고 애쓰기보다 행복보다 무한히 더 큰 가치, 즉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게 되면 자연히 부산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모든 일이 형통하는 부산물을 얻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

람입니다. 사랑하는 수영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나는 행복보다 무한히 큰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행복 자체를 추구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행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떤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할까요? 본문 1절~2절을 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1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악인들과 죄인들은 다 아는 단어이기에 오만한 자들의 의미를 더 살펴 보겠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원문을 보면 ‘스스로 교만하여 다른 사람들을 향해 빙정대거나 함부로 입을 놀리는 자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mockers(조롱하는 자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사고방식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과 같은 행동들을 반복하지 않으며 타인을 무시하며 함부로 입을 놀리는 자들과 함께 빙정대는 그런 악한 삶을 살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악을 떠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악을 떠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저 결심하면 되는가요? 아닙니다. 그 비결은 본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지혜가 없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악에서 떠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같은 진리는 너무나 자주 들었기 때문에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악인들과 죄인

들과 오만한 자들이 득실거리는 현실 세계에서는 너무나 미약해 보입니다. 본문을 보면 복 있는 자는 단수입니다. 그런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전부 복수입니다. 오늘 주변만 봐도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득실거리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 정치에서 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같은 방법으로 이들과 같이 모여서 꾀를 내고, 작당하여 세력을 만들고, 함께 앓아 적들을 비방하면서 대항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러기는커녕 그저 혼자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온종일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외롭기 한량없고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시편 102편 7절의 고백처럼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라는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훌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는 이 사람의 모습은 지붕 위에 떨고 있는 참새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묘사하는 이유는 본문 3절~4절에 나옵니다. ³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⁴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

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부분이 시편 1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인데 악인들과 의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의인이라면 ‘바람에 나는 겨’는 악인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날아가는 겨라는 두 이미지가 의인과 악인의 강력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아시다시피 나무는 요동하지 않지만 겨는 바람에 날아갑니다. 첫째, 의인의 안정성과 악인의 불안정성이 날카롭게 대조됨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많이 맺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지만 겨는 그 누구에게도 쓸모가 없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남에게 유익한

의인의 삶과 요란하기만 할 뿐 무익한 악인의 삶이 강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득실거리는 가운데에서 훌로 여호와의 유통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감사의 찬양보다 탄식의 애가가 더 많습니다. 결국 복 있는 사람은 고난을 겪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자라는 것이 시편의 가르침입니다. 둘째로 유통법을 즐거워하고 유통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을 지속해서 공급받기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끝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형통하다’는 말은 중간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수난 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형통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부활 주일에 텁 빈 무덤의 관

점에서 보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열매를 맺으셨기에 끝

내는 형통하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악을 떠나고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기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영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인 이신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비록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며 악을 떠난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과 이웃을 즐겁게 하는 열매를 철을 따라 맺게 될 것입니다.

이에 비해 악인들은 겉으로 보면 모여서 의논을 하고 함께 작당하며 길을 몰려다니고 함께 앓아 남을 비방하고 함부로 입을 놀리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만 이들은 무가치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의 심판의 바람이 부는 날, 사방으로 날아 가는 겨와 같은 허망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겨는 뿌리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겨는 그 어딘가에도 설 자리 가 없습니다. 따라서 바람이 불면 버틸 수 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알곡이 빠져나간 껍데기에 불과한 겨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끝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갑작스럽게 망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본문 5~6절 을 보면 “⁵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⁶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과 의인들의 길이 너무나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영로교회 교우 여러분, 행복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보다 무한히 더 큰 가치가 있는 일들을 할 때 간접적으로 주어지는 부산물이 복입니다. 지금 행복보다 더 큰 가치를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시련이 없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루터는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승리해 본 경험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잡고 마귀의 시련을 이겨 보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바르고 진실

하며, 강력하고 위로가 가득한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과 시련이야말로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빙성을 맛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면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나니 우리의 상이 클 것입니다. 이런 복을 평생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사랑원들을 환영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교제를 통한 삶의 나눔 말씀나눔

여는말 ICE BREAKING

오늘(사랑방 모임 하는 날) 큐티(매일 성경)한 내용을 서로 나누어봅시다.

• 감사함으로 친양 | 23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229 여호와 나의 목자 340 심령이 가난한 자는

• 찬송가 | 95 나의 기쁨 나의 소망되시며 288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428 주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나눔1.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갈릴리 첫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시편의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나눔2. 성경은 행복의 주제를 다룰 때 행복보다도 행복한 자가 누구인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눔3. 행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악을 떠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악을 떠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나눔4. 악인들이 득실거리는 가운데에서 훌륭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눔5. 예수 그리스도가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 형통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다면 무엇을 통해 형통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봅시다.

❶ 하나님께서 세우신 수영로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나라사랑 햇불 기도운동을 통해 부산과 민족, 열방을 깨우고, 수영로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88개국, 1200여 명의 선교사님들과 300여 개 농어촌, 도시 미자립 교회에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소서.

❷ 계속해서 진행되는 국내임팩트와 해외단기선교에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소서. 복음을 위해 순종하여 나아가는 국내 임팩트 96개팀, 2,500여 명과 해외 단기선교 36개국 130개팀, 1,580여 명을 통하여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훌륭히 하소서. 아울러 진행되는 다음 세대 여름캠프들을 통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❸ 수영로교회 여름 행사인 여름특강과 성경통독에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영적 도약과 승리를 경험하는 여름을 보내게 하소서.

*목자플러스 담임목사님 교육 영상을 수영로교회 앱에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영로교회 예배와 찬양] 앱→수영로소식→목자플러스 담임목사님 교육